

차별의 개념화와 측정: 국내 이주민 차별 질적 연구의 체계적 문헌 검토*

손인서** · 한승훈***

요약

국내 이주민 인구의 지속적인 증가에 따라, 이주민에 대한 내국인의 차별 행위에 대한 사회적 및 학술적 관심이 급증하고 있다. 그러나 이주민 차별의 정의, 개념, 그리고 측정 방법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는 여전히 부족한 상황이다. 본 연구는 양적 연구와 대조적으로, 사전적 조작화 없이 사회 현상을 조사하는 질적 연구의 특성을 활용하여 이주민 연구에서 나타나는 차별의 개념화와 측정 동향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체계적 문헌고찰(systematic review) 방법을 이용하여 2013년부터 2022년까지 국내외에서 출간된 국내 이주민 차별 관련 질적 연구 학술논문 총 107편을 선별하였다. 그리고 선별된 문헌에서 나타난 차별의 정의, 개념, 그리고 보고 동향을 구조화하여 검토하였다. 연구 결과, 국내의 차별 질적 문헌은 지난 10년 간 양적 성장을 이루었으나, 연구대상의 편향, 미흡한 개념화, 그리고 불충분한 보고(reporting) 등 질적 발전에는 미흡하였다.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향후 이주민 차별에 대한 이론적 및 방법론적 과제를 제시한다.

주제어: 질적연구, 차별, 측정, 개념화

* 이 논문은 2021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21S1A5B5A16077554)

** 제1저자.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원, panopticon17@gmail.com

*** 교신저자. 중앙대학교 공공인재학부, sehan@cau.ac.kr

I. 서론

국내 이주민 인구가 약 250만 명에 육박할 정도로 증가하면서(행정안전부, 2024) 이주민을 향한 내국인의 차별 행위(discrimination)에 관한 사회적, 학술적 관심이 높아졌다. UN 인종차별철폐위원회(UN Committee on Elimination of Racial Discrimination)는 2018년 한국 정부에 “인종차별 정서가 심해지는 대한민국의 국가적 위기 상황에 대해 경고”하면서 사회문제로서 차별에 대한 환기를 요청한 바 있다(CERD 2018). 국내학계에서는 2000년대 초부터 관련 연구가 진행되기 시작하여 20여년 동안 꾸준히 학술논문이 출간되었고(손인서·김승섭, 2015) 이주민 대상 국가승인통계는 2009년 전국 다문화가족 실태조사에서 차별경험 척도가 포함된 이래로 계속해서 차별경험을 조사, 공표하고 있다.

이주민 차별을 측정한 조사와 연구는 진전되어 왔지만, 정작 차별의 측정에 관한 국내 학계의 논의는 답보상태에 있다(손인서 2023). 양적연구의 경우 국가승인통계나 여타 다양한 목적의 설문조사에서 표준화된 차별경험 척도를 사용하면서 신뢰성과 타당성 평가가 직간접적으로 이루어져 왔다. 또한, 외국에서 내용 및 구성개념 타당성이 검증된 척도를 도입하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다(예로, 정윤경·김희진·최지현, 2015). 반면, 연구대상자의 기술과 행태를 수집, 분석하는 질적연구는 차별의 측정이 연구자의 해석에 달려있다(Charmaz 2006). 따라서 차별측정에 대한 이론적, 경험적 논의가 초보적인 국내학계에서, 차별측정을 둘러싼 인식론적, 해석적 이슈는 논쟁적일 수밖에 없다. 하지만 현재까지 이주민 차별조사 질적연구에서 중요 개념인 차별의 측정에 대해 본격적인 문제를 제기하고 관련 문헌의 동향을 조사, 분석한 연구는 없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체계적 문헌고찰 방법(systematic review, 김수영·박지은·서현주·이운재·손희정·장보형·서혜선·신재민, 2011)을 이용하여, 지난 10년간 이주민 차별을 질적연구방법론을 통해 조사, 분석한 문헌들을 대상으로 차별의 측정, 개념, 보고의 경향을 체계적으로 검토한다. 이를 통해 국내 질적연구의 차별 측정 동향과 문제점을 밝힌다. 연구는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요청되는 과제를 제시함으로써 국내 이주민 차별 연구에 기여하고자 한다.

II. 인지된 차별(perceived discrimination)의 측정과 질적연구의 평가

차별은 광의로 “지배와 억압의 사회적 관계를 표현하거나 제도화하는 모든 수단”(Krieger, 1999)을 가리키지만, 내국인과 이주민 사이의 관계에 한정 짓는다면 인종 혹은 민족이 다른 집단에 대해 주류 집단이 자신의 특권을 지키기 위해 이들을 체계적으로 배제하는 사회적 행위로 정의된다(Blank, Dabady, Citro, and National Research Council, 2004, Small & Pager, 2020). 차별은 그 유형에 따라 제도적, 구조적, 대인상호적, 법적, 명시적, 암시적 등 다양한 차원으로 구분된다. 하지만, 개인을 연구대상으로 삼는 경험연구는 대부분 피해자(이주민)가 경험하는 인지된 차별(perceived discrimination)을 조사대상으로 삼는다. 인지된 차별은 이주민이 일상생활에서 경험을 통해 인지된 부당한 대우(unfair treatment)로, 그 특성상 제도적 차별보다는 대인상호관계에서 발생하는 차별, 암시적 차별보다는 명시적 형태의 차별 보고에 유리하다(Light, Roscigno and Kalev, 2011).

〈표 1〉 차별의 유형

	명시적 혹은 직접적	암묵적 혹은 간접적
거시적 (제도, 구조)	법, 조직, 제도, 국가 등	계층, 성별 차별, 노동시장, 지역사회 구조
미시적 (대인상호작용)	폭력, 폭언, 직접적 부당대우 등	통계적 차별, 사회적 고립(무시, 회피) 등

주: 회색은 인지된 차별

출처: Light et al. 2011:45; 손인서 2023:159를 수정 보완.

인지된 차별은 주로 양적연구에서 설문조사에서의 측정을 통해 발전이 이루어졌다. 특히, 다양한 차별유형을 식별하기 위한 척도(설문문항)의 개발이 두드러진다. 선행문헌은 중대차별 경험 척도(major experiences of discrimination), 일상생활 차별척도(everyday discrimination scale), 종족 차별 척도(general ethnic discrimination scale), 인지된 인종주의 척도(perceived racism scale), 작업장 편견/차별 척도(workplace prejudice/discrimination inventory) 등을 개발했다(Bastos et al., 2010). 일례로, 중대 차별 경험 척도(Williams, Gonzalez, Williams, Mohammed, Moomal, and Stein, 2008)은 해고, 취업 거부, 부당 검문검색, 대출거절, 서비스 거절 등을 측정한다. 또한, 일상생활 차별척도(Williams, Yu, Jackson, and Anderson, 1997)는 욕설, 위협, 괴롭힘, 존중여부, 식당 등에서의 처우, 지능에 대한 판단 등을 측정한다.

반면, 질적연구는 연구대상자의 진술과 행위에서 직접적으로 차별을 측정(식별)하는 만큼, 이러한 표준화된 측정도구(설문지 등)를 그대로 사용하기 곤란하다. 보다 일상적인 설정(natural setting)에서 자료를 수집하는 질적연구(Aspers and Corte 2019)에서 차별의 측정은 연구자의 해석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Charmaz 2006). 인지된 차별은 그 특성상 피해자의 경험에 대한 주관적 인지에 좌우된다. 양적연구의 척도는 인구집단 대다수에게 명백하지만 그 때문에 한정된 범위의 인지된 차별을 측정한다. 대조적으로 질적연구는 자연적 설정에서 진술을 통해 차별을 측정하므로 양적연구보다 보다 넓은 범위의 차별을 조사할 수 있는 장점을 갖는다(표 2 참고). 그러나, 진술된 차별이 지위에 기반한 차별이 맞는지, 혹은 인지된(경험된) 차별이 맞는지에 대한 판단은 많은 경우 피해자는 물론, 연구자의 해석에 달려있다. 즉, 질적연구에서 연구자의 차별 측정은 수집된 자료의 분류(유형, 어떤 종류의 차별)와 아울러 그 자료의 해석(‘차별에 해당하는가’)을 모두 포함한다. 여기에서 연구자의 해석은 개인의 특성보다는 연구공동체의 관행을 반영한다.

〈표 2〉 인지된 차별의 식별과 방법론별 차이

	인지가능	인지불가능
지위에 기반한 차별	양적연구, 질적연구	질적연구
개인적, 선호에 의한 차별	질적연구	

이 같은 질적연구의 특성을 고려하여, 해외 학계에서는 연구결과의 체계적인 검토에서 양적연구와는 차별화되는 질적연구 결과의 종합(문헌검토) 방법론의 발전이 이루어져 왔다. 이는 특히 연구결과의 신뢰도 평가방법에 집중되었다(Goldet & Howick 2013; Munn, Porritt, Lockwood, Aromataris, and Pearson, 2014). Munn 외(2014)은 양적연구의 내적 타당도(internal validity)와 유사하지만 구별되는, 질적연구의 신뢰도(credibility) 평가를 제안하였다. 이는 수집된 자료와 연구자 해석의 일치도를 순위 등급(ranking scale)으로 제시한다. 이를 통해 자료에 대한 해석이 적절한지를 판단하고 이를 바탕으로 연구결과의 유용성을 객관적으로 순위화할 수 있다. 질적연구 결과의 평가방법은 단순히 개별연구 결과들의 체계적 종합 외에도, 질적연구의 특성을 고려하면서 연구경향을 파악하는데 적절한 대안이 될 수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 국내 질적문헌에 대한 문헌고찰은 연구결과를 산술적으로 종합하는데 그쳤고 결과의 해석적 측면을 고려하지 않았다(예로, 류진아·오은경 2021; 이윤희·Xu·홍소은·이은별·양은주, 2022; 임주원·김서현 2022; 진재섭·김윤희 2022). 따라서 이 연구는 차별 측정의 해석적 측면을 포함하여 지난 10년간 이주민 차별을 조사한 질적연구문헌을 체계적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III. 연구방법

연구는 국내 이주민 대상 차별현상을 질적연구방법으로 조사한 학술지 문헌을 체계적 문헌고찰 방법을 이용해 체계적으로 수집, 분류, 분석하였다. 연구는

국내 이주민 혐오차별 문헌고찰 프로젝트에서 수집된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였다. 이 프로젝트는 2013~2022년까지 국내 이주민 대상 혐오와 차별을 조사한 국내외 학술논문을 수집, 분석하였다. 프로젝트는 문헌선정의 객관성을 위해 PRISMA 가이드라인 (Moher, Liberati, Tetzlaff, and Altman, 2009)을 준용하였다. 연구는 그 가운데 질적연구방법론을 사용하여 이주민 차별을 조사한 문헌만을 대상으로 문헌고찰을 시행하였다. 구체적으로 문헌선정의 원칙은 1) 2013~2022년 동안 국내외 학술지에 한글 혹은 영어로 게재된 학술 논문으로, 2) 국내에 거주하는 이주민을 대상으로 인터뷰 등 질적연구방법으로 인지된 차별(perceived discrimination)을 조사한 문헌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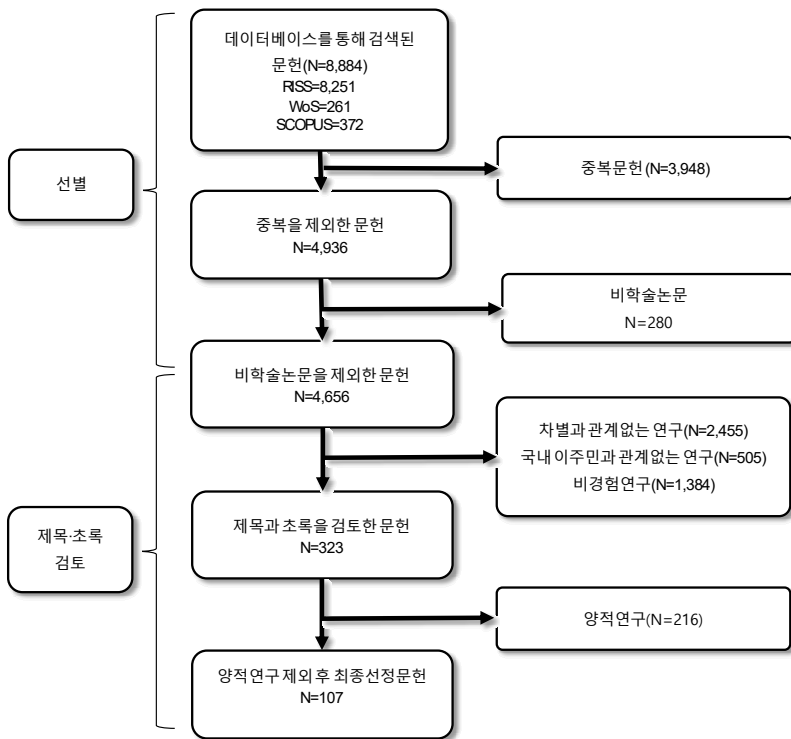
연구는 국내외 대표적인 학술전자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여 대상 문헌을 검색하였다. 국내 학술지는 학술연구정보서비스(RISS)를 사용하였다. 학술연구정보서비스는 여타의 국내학술데이터베이스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단일 데이터베이스만을 이용하였다. 영문 학술지의 경우 대표적인 학술데이터베이스인 Web of Science와 SCOPUS를 이용하였다. 데이터베이스별 검색 항목과 검색어는 <표 3>과 같다.

<표 3> 학술전자데이터베이스 검색방법 (항목 및 검색어)

구분	항목	검색식
RISS	제목, 주제어, 초록	[혐오, 증오, 제노포비아, OR 차별] AND [다문화, 이주, 이민, 외국인, 유학생, 난민, 조선족, 동포, 교포, 탈북, 북한이탈, 인종, 종족, OR 민족]
Web of Science	제목, 초록, 키워드	[Korea] AND [hate, xenophobia, discriminat* ¹⁾ , OR racis*]
SCOPUS	제목, 초록, 키워드	AND [migrant(s), immigrant(s), refugee(s), foreign, foreigners, multicultural, ethnic, joseonjok, co-ethnic, defector, OR international]

1) *(wildcard)는 단어의 파생형을 모두 검색하기 위해 사용하였다.

학술전자데이터베이스를 통해 총 8,884편이 검색되었다. 연구는 PRISMA 가이드라인에 기반하여 3단계의 선별작업을 진행하였다. 1단계로 연구는 서지관리 소프트웨어(Endnote 20)를 이용하여 중복된 문헌(3,948편)을 제외하였다. 2단계로 발표문, 에세이 등 비학술지 문헌(280편)을 선별하였다. 3단계로 저자는 제목과 초록을 검토하여 차별을 조사하지 않은 문헌, 국내 이주민을 연구대상으로 삼지 않은 문헌, 비경험연구, 그리고 양적연구방법론을 사용한 문헌을 배제하였다. 제목과 초록 검토 후 최종 선정된 문헌은 107편이다. 선별과정은 <그림 1>과 같다.



<그림 1> 문헌 선정 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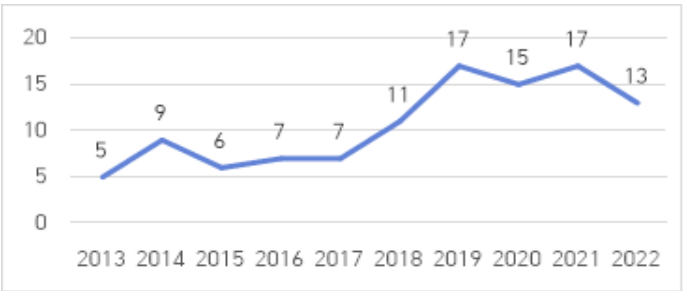
IV. 연구결과

연구는 체계적 선별작업을 거쳐 선정된 107편의 논문을 대상으로 지난 10년간 출간된, 국내 이주민 차별을 조사한 질적연구의 경향을 분석하였다.

〈표 4〉 국내 이주민 차별 질적연구문헌 현황 (N=107)

	논문 수(편)	비율(%)
학문분야(계재지)		
인문학	10	9.3%
사회과학	72	67.3%
농수해양학	1	0.9%
예술체육학	2	1.9%
의약학	2	1.9%
복합학	20	18.7%
합계	107	100.0%
출판언어		
한국어	91	85.0%
영어	16	15.0%
합계	107	100.0%

1. 시계열 현황과 연구대상



〈그림 2〉 국내 이주민 차별경험 질적 연구의 출판연도

분석 결과 지난 10년간(2013~2022) 국내 이주민 집단의 차별경험을 조사한 질적연구는 꾸준히 증가했다. 2013년 5편에 머물렀던 연구는 2021년 17편의 논문이 출간될 정도로 성장하였다. 이는 부분적으로 지속적인 이주민 유입에 따른 학계의 높아진 관심을 반영한다. 하지만, 연구의 활성화가 연구대상의 다양화에는 미치지 못하였다. 연구 대상별로 나누어 살펴보았을 때 연구대상의 편중이 두드러졌다. 지난 10년간 차별경험 질적연구는 결혼 이주민(26편), 유학생(18편), 그리고 탈북민(16편) 집단에 집중되었다. 세 집단에 대한 연구가 총 문헌의 절반 이상(56%)를 차지한다.

흥미로운 점은 다른 이주민집단에 비해 단기체류에 해당하는 유학생의 차별경험에 관한 질적연구가 상대적으로 많다는 것이다. 이는 부분적으로 상대적으로 연구참여자를 구하기 쉽고, 언어적 소통이 다른 집단에 비해 원할하다는 점이 작용한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어학연수 등 단기체류자가 많고 졸업 후 취업률과 장기체류 전환률이 매우 낮다는 점을 고려할 때 유학생 연구에의 편중은 과도한 측면이 있다. 대조적으로, 미등록이주민, 이주노동자, 그리고 다문화자녀에 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미흡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주요한 차별피해자로 지목되는 이주노동자와 미등록이주민에 관한 조사가 많지 않다는 점은 우려할 만하다. 이들 집단은 상대적으로 언어소통이 어렵고 구인이 어렵다는 점이 질적 연구의 활성화를 가로막는 주요 장애물로 추측된다. 이주노동자와 함께 미디어에서 차별피해자로 자주 언급되는 재외동포(특히 중국동포)에 관한 연구도 상대적으로 소수인 점 역시 지적할 만하다.

〈표 5〉 연구대상별 현황 (문헌수, 편)

구분	2013-2014	2015-2016	2017-2018	2019-2020	2021-2022	합계
결혼이주민	6	5	5	4	6	24
다문화자녀	2	2		2	3	9
이주노동자	1		2	5		8
난민				3	2	5
미등록이주민				1		1

구분	2013-2014	2015-2016	2017-2018	2019-2020	2021-2022	합계
유학생	1	2	5	5	5	18
재외동포	1		2	6	2	9
탈북민	2	3	3	4	4	15
혼혈인			1		1	2
이종집단	1			1	5	7
2세대이주민		1		1	2	4
합계	14	13	18	32	30	107

2. 연구방법과 자료수집

첫째, 연구는 세부 방법론에 따라 문헌을 분석하였다. 먼저, 자료수집방법에 따라 문헌을 분석하였다. 107편의 차별조사 질적연구는 1편을 제외하고 인터뷰(interview)를 주된 자료수집 방법으로 사용하였다. 예외인 1편(Choi 2014)은 이주노동자를 대상으로 참여관찰(participatory observation)을 주된 자료수집방법으로 이용하고 보조적으로 인터뷰를 병행하였다.

그리고, 인터뷰의 종류에 따라 문헌을 분석하였다. 107편 가운데 5편은 초점집단 인터뷰(focus group interview)를 심층 인터뷰와 병행하거나, 혹은 단독으로 시행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일례로, 전주람과 최경(2022)은 청년 탈북민을 대상으로 초점집단인터뷰를 통해 친구관계에서 경험된 차별을 조사하였다. 이경상 외(2019)는 재외동포 청소년을 대상으로 10명은 초점집단인터뷰, 2명은 심층인터뷰를 병행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그 외 참여관찰 1편을 제외한 나머지 101편은 대면 1:1 인터뷰를 통해 자료수집을 시행하였다.

다음으로 자료수집 목적에 따라 문헌을 분류하였다. 분석대상 107편 가운데 생애사(혹은 구술사, life history or oral history) 수집이 목적인 연구가 4편이고 나머지 103편은 이주민의 체험(lived experiences) 수집을 목적으로 시행되었다. 일례로, 김지혜(2020)는 중국동포 청년을 대상으로 이주사

(migration history)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차별경험을 보고하였고, 박상희(2019)는 국내 난민들의 구술사를 수집하였다. 반면, 대부분의 문헌은 오정아·변수정(2020)의 이주청소년 학업중단 경험과 같은 체험과정의 차별경험을 분석하였다.

둘째, 이주민 차별 질적연구문헌의 연구 참여자 수를 살펴보았다. 객관적인 비교를 위해 내국인 연구 참여자, 전문가, 그리고 참여관찰 대상자를 제외한 이주민 인터뷰 연구 참여자만을 포함하였다. 먼저 전체 107편 가운데 2편의 논문(김정희, 2018; 박민철, 2014)은 연구 참여자수를 명시하지 않았고, 참여관찰이 주된 방법론의 경우(Choi, 2014)도 집계에서 제외하였다. 분석대상 문헌의 평균 연구 참여자수는 10.6명이었다. 연구집단별로 살펴봤을 때 혼혈인 연구의 평균 참여자수가 6명으로 가장 낮았고, 이종집단이 20.7 명으로 가장 높았다. 하지만, 이종집단의 경우 64명을 인터뷰한 1 편의 연구(Udor & Yoon, 2022)를 제외하면 평균 10명이었다.

특이하게도 가장 많은 연구가 이루어진 결혼이주민 문헌의 평균 연구 참여자 수가 7.9 명으로 다른 연구대상집단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적은 수의 연구 참여자를 조사했다. 문헌 수가 많은 유학생 연구에서는 평균 14.9 명, 탈북민 연구에서는 평균 8.3 명이었다. 즉, 결혼이주민과 탈북민 문헌에서 연구 참여자 수가 상대적으로 적은 반면, 유학생 연구는 참여자수가 많은 것이 두드러진 특징이다. 이는 특정 인구집단에 대한 연구의 활성화가 질적 발전을 동반하지 않았을 가능성을 함의한다. 유학생의 경우 참여자수가 상대적으로 많은 것은 다른 이주민 집단이 사회, 경제, 문화적으로 소외되어 있지만, 유학생은 그에 비해 사회적 제약이 매우 낮고 학교에 소속되어 있어 모집이 매우 쉽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추가로 언급해야 할 점은, 연구 대상자의 수가 적은 문헌의 비율이 낮지 않다는 것이다. 5명 이하의 연구 참여자를 조사한 문헌이 22편으로 조사대상 문헌의 약 20%에 달한다. 물론, 질적연구에서 연구 대상자의 제한은 없지만, 과도하게 적은 수의 연구 대상자는 연구결과의 질을 떨어뜨릴 우려가 있다. 특히 이주민 집단의 경우 한국어로 원활한 의사소통이 어려워 인터뷰의

질이 낮을 가능성이 높고 출신지, 체류자격 등 매우 이종적인(heterogeneous) 하위집단으로 이루어져 있어 연구 대상자의 수를 늘리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 연구 대상자의 모집이 내국인에 비해 어렵고 비용이 많이 드는 점 등이 문헌의 연구 대상자 수가 적은 원인이 될 수 있으나, 5명 이하 인터뷰 연구의 비율이 높은 것은 연구의 타당성과 신뢰성을 고려할 때 우려스러운 부분이다.

〈표 6〉 연구대상별 연구참여자수

구분	평균 참여자 수(명)
결혼이주민	7.9
다문화자녀	9.3
이주노동자	9.9
난민	8.6
미등록이주민	10.0
유학생	14.9
재외동포	11.1
탈북민	8.3
혼혈인	6.0
이종집단(heterogeneous group)	20.7
2세대이주민(기타)	10.8
총 평균 (명)	10.6

셋째, 질적연구의 특성을 고려하여 연구윤리를 준수하여 자료수집이 이루어졌는지 조사하였다. 연구는 연구윤리위원회(Internal Review Board, IRB) 심의 승인의 본문 명시로 지표를 삼았다. 본문에 IRB 승인을 명시한 문헌은 16편으로 조사대상 문헌의 약 15%에 해당한다. 이는 상당히 낮은 수치로 연구대상에 기인하는 문제가 아닌, 학계의 관행인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IRB 심의를 받고 본문에 명시하지 않거나, 학술지에서 자체 조사한 경우 본문에 명시하지 않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참고적 수치로 간주되어야 한다.

3. 차별의 정의와 개념화

연구는 이주민 차별 질적연구문헌에서 적용한 차별의 정의와 개념을 분석하였다. 질적연구는 사전적 조작화된 질문을 통해 측정하는 양적연구와 달리, 행태와 진술에서 차별을 직접적으로 식별(identify)하기 때문에 문헌이 기반하고 있는 정의와 개념은 측정과 뗄 수 없이 연결되어 있다. 그러나, 국내에서 이주민 차별의 정의와 개념에 관한 논의와 합의는 매우 부족하기 때문에(손인서, 2023), 문헌에서 제시하는 정의와 개념을 통해 측정 관행을 분석하였다.

첫째, 총 107편의 이주민 차별 질적연구 가운데 차별경험에 배타적으로 초점을 맞춘 문헌은 38편(약 36%)이며 나머지는 이주민 관련 주제를 조사하면서 그 양상이나 요인의 하나로서 차별경험을 다루고 있다. 차별경험을 배타적으로 조사한 38편의 문헌 중 4편은 마이크로어그레션(microaggression)으로서의 차별경험을 대상으로 하였고, 나머지 34편은 모두 인지된 차별을 대상으로 하였다. 그리고, 전체 107편 가운데 차별경험을 조사하면서 본문에 구체적으로 차별을 정의(define)한 문헌은 11편에 그쳤다. 마이크로어그레션은 최근 들어 학계의 관심을 가진 주제이어서 이를 대상으로 한 문헌은 모두 이에 대한 정의를 포함하고 있다. 마이크로어그레션을 제외한 문헌에서 차별을 정의한 논문은 7편으로 전체 조사대상 문헌의 약 7%에 해당한다. 그렇지만, 마이크로어그레션은 미국에서 1960년대 중반 민권법 통과 이후 직접적인 차별행위가 불법화되면서 인종주의의 양상이 비가시적으로 변화한 사회적 맥락에서 등장하였다(Bonilla-Silva, 2006; Sue, Capodilupo, Torino, Bucceri, Holder, Nadal, and Esquilin, 2007). 따라서 차별행위에 대한 법적 제재가 없는 한국사회에 이 개념을 적용할 수 있는지는 의문시된다. 결국, 대부분의 차별 질적연구는 차별을 별도로 정의하지 않고 자명한 개념으로 간주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둘째, 이주민 차별 질적문헌이 어떻게 차별을 개념화하고 있는지 살펴보았다. 경험연구의 특성상 문헌은 세부적으로 차별경험을 개념화하고 있지

않다. 대신, 질적연구의 특성을 감안하여 차별경험의 분류(category)와 명명(labelling)에서 드러나는 개념을 조사하였다. 조사 결과 대부분의 문헌은 ‘이주민 차별’과 같이 출신국, 피부색, 이민, 언어 등에 따른 차별로 정의하거나, 별도로 개념화하지 않고 ‘차별’, ‘차별경험’ 등으로 분류하고 명명한다. 반면 소수의 문헌은 차별을 야기하는 요인과 차별행위 자체를 명시적으로 개념화하고 있다. 먼저 차별을 야기하는 요인을 개념화한 문헌 4편은 “문화사대주의”, “민족내 위계화”, “차별적 다문화주의”, “언어차별주의”, 그리고 “인종언어 이데올로기”로 정의하고 있다. 김재은 외(2017)는 “영여권 국가의 문화가 우리나라 문화보다 우월하다고 믿는” 사대주의가 내국인의 외국인을 향한 차별을 유발한다고 직접적으로 개념화한다. 박민철(2014)은 중국, 구소련, 일본 출신 교포와 탈북자를 대상으로 한민족 내 위계화된 관념이 이들을 향한 차별을 발생시킨다고 서술한다. 윤승주(2016)는 이주민 차별의 원인을 “차별적 다문화주의”로, 이화숙 외(2021)는 “언어차별주의”로, 김정숙(2021)은 “인종언어 이데올로기”로 규정한다. 소수지만 이들 문헌은 선행문헌에서 이주민 차별의 요인을 인종·민족적 차이로 정의하는 것과 크게 차이가 난다.

다음으로 대부분의 조사대상 문헌은 차별경험을 별도로 개념화하지 않는 반면, 9 편의 문헌은 선행연구의 합의(인종·민족이 다르다는 이유로 가해지는 부당한 대우)와 다르게 개념화하고 있다. 김정숙(2021)은 코로나19 대유행기 이주민 차별을 “이데올로기 차별경험”로 명명하고 구체적으로 “인종언어적 이데올로기의 체현”으로 개념화한다. 박미숙·손영화(2018)는 이주노동자의 차별경험을 인권에 위배된 행위라는 의미로 “인권차별 경험”로 분류한다. 다른 한 편으로 이형하(2013)는 결혼이주여성의 인지된 차별을 “차별의 대상인 몸”으로서 생활세계의 신체적 양상으로 분류한다. 일부 문헌은 차별경험을 인식으로 환원하기도 한다. 정영선(2018a)의 경우는 탈북민의 차별경험을 “차별의 인식”으로 분류하고, 전해경(2022)은 결혼이주민의 차별경험을 “차별의식의 경험”으로 명명한다. 이 외에도 정창용·조미영(2015), 정영선(2018b), 이현심(2014)은 차별경험을 조사하고 있음에도 “차별적 시선”으로 개념화하고 있다.

4. 연구결과의 보고(reporting)

질적연구에서 주장 혹은 발견의 근거(evidence)는 진술의 일부, 즉 인용문(quote)의 제시로 입증한다(Matthews, 2005). 질적연구문헌의 인용문은 연구참여자의 진술 가운데 연구자가 학계에서 보편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차별 경험에 해당하는 일부만을 취사선택한 것으로 간주된다. 따라서 질적 문헌의 인용문은 연구자는 물론 학계의 차별경험 측정 경향을 분석하기에 매우 적합하다. 연구는 이주민 차별 질적연구에서 차별경험을 보고한 인용문을 선별, 분류하여 전반적 특성을 밝히고자 하였다.

〈표 7〉 차별경험 인용문 제시 특성 (중복집계)

	인용문 없음	인용문 있음 (N=95)				
		차별경험	사소한 경험	맥락 불투명	의견/태도	관련없음
문헌수(편)	12	54	13	17	25	16

연구는 이주민 차별 질적연구 문헌에서 차별을 보고한 연구참여자의 인용문을 분류하였다. 총 107편의 문헌에서 12편(약 11%)이 차별경험을 보고하면서 연구참여자의 진술을 제시하지 않았다. 이를 제외하고 연구참여자의 진술을 제시한 95편을 대상으로 차별의 근거로 제시된 진술을 특성에 따라 분류하였다(표 7). 문헌 전체에서 연구참여자가 차별을 경험했다는 진술을 문헌에서 적어도 1회 보고한 논문은 54편이었다. 일례로, 중도입국청소년을 조사한 한 연구(손영화·박봉수 2015)는 다음과 같은 인터뷰 일부를 차별의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

우리 공장에는 외국인 근로자가 몇 명 있었어요. 한국사람과 똑 같은 일을 하고도 우리들은 100만원~120만 원 정도 받았어요. 뿐만 아니라 한국사람들을 부를 때는 00씨, 우리를 부를 때는 야 XX. 그것은 학교도 회사도 다 마찬가지예요. 외국인이면 무조건 무시하고 차별하는.

그렇지만 모든 문헌이 차별경험을 직접적인 근거로 제시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상당수의 연구는 간접적이거나 관련성이 낮은 진술을 보고하고 있다. 이 가운데 가장 많은 빈도를 기록한 것은 의견 혹은 태도로 25편에 달한다. 이 문헌들은 차별경험 대신 차별이 존재한다는 연구참여자의 의견과 태도를 근거로 제시한다. 예를 들어 탈북민의 경험을 조사한 연구(성정현 2014)는 이들이 한국사회에서 경험한 차별의 예시로 연구참여자의 의견을 보고하고 있다.

여기 오니까 기대 한 거 보다 달라요. 나이 있지 북한이지 이러니까 차이를 엄청 줘요 막 기분이 없을 정도 차이를 줘요, 말투도 그렇고(중략).
눈에서 열이나요 스트레스 받아서 내가 중국에 있을 때도 이 스트레스 자꾸 받으니까 눈 흰자에 침범해서 수술 한거예요.

제시된 인용문은 내국인이 탈북민에게 북한 출신이라는 이유로 부당대우(“차이”)를 한다는 한 연구참여자의 진술이다. 연구참여자의 경험을 제시하는 대신 연구는 부당대우가 존재한다는 일반적인 진술을 차별의 근거로 보고한다. 이는 차별경험의 직접적 근거로는 불충분한 것이 사실이다. 그렇지만, 국내 이주민 차별 질적연구에서 하나의 주요한 경향으로 사용되고 있다.

두번째 유형은 구체적인 맥락이 제외된 인용문이다. 17편의 문헌에서 적어도 하나의 인용문은 어떠한 맥락에서 경험하였는지 서술이 부재하거나 인용문 자체로 차별임을 알기 어려운 경우가 발견되었다. 개인간 상호작용(interpersonal interaction)에서 발생하는 일상적 차별은 간접적이거나 미묘한 행태가 많기 때문에 맥락의 기술은 차별경험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따라서 진술 자체로 차별발생이 이해되지 않는 경우 문헌은 상황의 맥락을 설명하는 것이 연구결과의 서술에 중요하다. 맥락화되지 않은 인용문의 한 예는 국내 중국동포의 차별경험을 조사한 연구(김한울·김현준·이강현·양경은, 2019)이다. “한국 선주민의 선입견과 편견에 의한 차별경험”으로 분류된 장에서 다음과 같은 인용문으로 차별경험을 분석하고 있다.

사장님이 저희 교포들한테 좀 안 좋은 이미지를... 몰라, 다른 일을 겪어서인지는 모르겠는데 선입견을 가지고 보더라고요. (...) 그 사장분이 저희들한테 대하는 대우가 한국분한테 하는 대우와 좀 틀리고, 좀 말투도 좀 틀리다고 해야 되나? 뭐 .. 속으로는 아, 왜 이렇지 하면서도 말은 못하겠고.

이 인용문에서 연구참여자가 강조하는 “대우”와 “말투”가 실제로 차별에 해당하는지 진술만으로는 객관적인 판단이 어렵다.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상황이 발생한 구체적인 맥락, 즉 작업장의 종류, 업무의 특성, “사장”의 구체적인 행동과 말을 이해해야 한다. 무엇보다 사장의 대우와 말투가 연구참여자의 지위, 즉 이주민 때문에 발생한 것인지, 아니면 성별, 나이, 학력 등 다른 요인에 기인한 것인지를 구별하기 위해서는 맥락의 서술이 중요하다. 그렇지만, 문헌에서 이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전무하다. 마찬가지로, 17편의 문헌에서 사용된 비맥락화된 차별경험 인용문은 차별의 유무와 원인을 식별하기 어려운 경향을 가지고 있다.

세번째 유형은 일반적인 차별로 정의하기 어려운 사례를 인용한 경우다. 앞서 분석했듯이 대부분의 국내 차별 질적문헌은 별도로 차별을 정의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별도의 차별정의를 없는 경우 이주민 차별에 대한 학계의 보편적 정의에 기반하여 차별사례를 분류하였다. 이 경우 그에 벗어난 진술을 사용한 사례가 16편에 해당한다. 이혼을 경험한 결혼이주여성을 조사한 한 질적연구(조세은·김혜미, 2022)는 이혼 이후 경험하는 “귀화와 상관없는 차별”의 예로 다음의 사례를 보고하고 있다.

그래서 이혼한 여성분들이 저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나라고[sic] 마찬가지예요. 외국인이라면 다 저랑 똑같은 상황을 겪고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제가 어떻게 보면 억울하죠. 내가 잘못해서 그렇게 집에 나가서 이혼한 거 아닌데. 내가 당해서 내가 피해자라서 이혼하고. 내가 왜 이런 꼴을 당하고 있는가.

이주민이라는 이유로 가해지는 부당한 대우(unfair treatment)(Krieger, 1999)라는 차별의 관점에서 위의 사례는 차별로 분류하기 어렵다. 문맥 상 “이런 꼴”은 차별을 함의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이에 관해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게다가 연구참여자의 경험이 이주민에 기인한 것인지 혹은 여성이나 이혼에 기인한 것인지도 분명하지 않다.

마지막 유형은 차별로 분류되기 어려운 사소한 사건(minor incidents)이다. 총 13편의 문헌은 차별경험의 근거로 사소한 경험을 보고한다. 국내 학계에서 차별의 유형에 대한 토의는 거의 없으며, 이에 따라 그 측정과 보고 역시 논의된 바가 거의 없다. 서구 선행문헌의 경우 중대차별(major discrimination), 일상차별(routine discrimination), 마이크로어그레션 등 강도와 영향에 따라 세부적인 분류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국내 질적연구는 마이크로어그레션을 제외하고 차별유형에 관한 분류와 보고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에 따라 차별 질적연구 역시 이러한 구분 없이 단일화된 ‘차별’로서 연구참여자의 진술을 나열하고 있다. 재외동포 청소년을 조사한 한 연구는 “차별”경험의 근거로 다음의 진술을 인용한다.

한국에서 친구들이랑 롯데월드 놀러 갔는데 (연변)사투리 쓰는데.. 지나가다 어떤 커플들이 우리보고 북한사람 아니냐고. 탈북자 아니냐고. 그런 적도 있고 진짜 탈북자 아니냐고 많이 물어봐요. 제가 연변 쪽에 살았다보니 중국말을 잘 못하다보니까 너 북한사람 아니냐고 그런 오해 정말 많이 받아요.

참여자가 진술하는 상황에서 내국인이 억양으로 탈북자를 구분하고 확인하는 행태 자체는 차별은 아니다. 다만 내국인이 피부색, 언어, 그리고 문화가 유사한 탈북민을 억양으로서 구분하는 인종주의적 행태로 취급될 수는 있다. 이러한 행태를 반복적으로 경험할 경우 이주민에게 악영향을 미칠 수 있음은 분명하다. 하지만, 이에 대한 연구참여자의 영향과 생각을 진술하지 않은 채 차별로서 이러한 경험을 보고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이 외 문헌들은 별도의 분류나 영향에 관한 설명없이 사소한 사건을 차별로 분류하고 있다.

V. 토의

연구는 체계적 문헌고찰 방법을 이용하여 2013~2022년의 10년간 출간된 국내 이주민의 차별경험을 조사한 질적문헌 107편을 분석하였다. 체계적 문헌고찰을 통해 도출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추후 질적연구에 요청되는 과제를 여섯 가지 측면으로 분류해 논의한다.

첫째, 보다 다양한 이주민 하위집단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지난 10년간 차별 질적연구는 배타적으로 결혼이주민, 탈북민, 그리고 유학생 집단에 집중되었다. 문헌들 간에 차별성도 낮아 중복조사가 이루어진 경우도 많다. 반면, 국내 40만 명이 체류하는 미등록 이주민(1편)이나 다문화 자녀가 아닌 기타 2세대 이주민(4편) 등과 같이 지난 10년간 거의 조사되지 못한 집단이 존재한다. 특히 화교는 연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또한, 차별에 보다 취약할 것으로 예상되는 비전문직 이주노동자(E-8~10), 미등록 이주민, 혹은 2세대 이주민 연구는 매우 부족하다. 따라서 향후 연구는 소외된 하위집단에 대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해 유학생에 관한 차별연구가 많다는 점은 재고할 필요가 있다. 현재 유학생은 양적으로 팽창되고 있지만 졸업 후 취업 등으로 체류하는 비율은 매우 낮고(박주현 2023), 학교 밖에서 사회경제적 활동을 거의 하지 않는 집단이다. 따라서, 이 집단이 경험하는 '차별'은 여타 이주민이 경험하는 차별과 질적인 차이가 존재할 수 있다. 가령, 유학생 제도의 미비, (교육)기관의 방치나 자원부족, 내국인 학생의 무관심 등을 차별로 일반화할 수 있을지 등 주의가 요구된다. 결국, 향후 연구는 연구대상의 접근성을 넘어 사회적 맥락과 결과를 고려하여 연구대상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

둘째, 보다 엄밀한 연구방법에 의거한 질적조사가 필요하다. 지난 10년간 출간된 이주민차별 질적문헌 가운데 5분의 1(22편)이 연구 참여자 수가 5명 이하인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비록 질적연구에서 최소 사례 수의 제한은 없지만, 국내 이주민의 특성, 예로 의사소통의 어려움, 이종적(heterogeneous) 집단구성, 그리고 다양한 출신지와 체류자격 등을 고려할 때 소수의 표본으로

충분한 정보수집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 게다가 이들 문헌은 적은 표본에 관한 정당화나 한계에 관한 이론적, 방법론적 논거를 별도로 제시하지 않았다.

흥미로운 점은, 차별 질적연구의 평균 표본수 10.6명과 비교할 때, 가장 연구가 많이 이루어진 결혼이주민이 7.9명, 탈북민이 8.3 명으로 다소 낮았다는 것이다. 이는 특정 인구집단의 연구활성화가 방법론의 질적 발전을 동반하지 않았다는 점을 함의한다. 이후 연구는 표본 수의 제고를 포함하여 보다 엄밀한 연구방법의 적용이 필요하다. 아울러, 비슷하게 높은 빈도를 가진 유학생대상 문헌의 연구대상자 평균이 14.9명이라는 점도 주목해야 한다. 유학생 연구의 표본 수가 상대적으로 높은 점은, 대학기관에 밀집되어 있어 모집이 쉽고, 학생이라는 지위의 특성상 학술연구에 익숙한 집단이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이는 자료수집이 연구대상 집단의 접근성에 상당히 좌우되는 것으로 추정될 수 있다. 그러므로 향후에는 연구대상 집단의 접근성보다는 학술적, 사회적 중요성에 따라 자료수집 규모를 정하는 등 엄밀한 방법론에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필요하다.

연구방법과 관련하여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사회적으로 취약한 지위의 이주민을 대면조사하는 질적연구의 특성을 고려하여 연구윤리의 엄격한 준수가 요구된다. 비록 불충분한 수치이지만 지난 10년간 질적연구문헌의 약 15%만 연구윤리위원회 심의승인을 명시하였다. 실제 승인율은 이보다 높을 것으로 추정되지만 여전히 낮은 심의율로 간주된다. 후속 연구는 이주민의 취약한 지위와 차별이라는 민감한 주제를 다루는 만큼 연구윤리의 엄격한 준수가 요청된다. 이를 위해 학계가 연구윤리위원회 심의의 의무화를 보다 강제하는 등의 공동노력에 나서야 한다.

셋째, 보다 엄밀한 차별개념과 정의에 근거한 연구가 요청된다. 사회현상을 조작화(operationalization)하여 측정하는 양적연구와 다르게 연구 참여자의 진술에서 차별을 포착해야 하는 질적연구의 특성을 고려하면 엄밀한 개념과 정의에 따라 차별경험을 조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지난 10년간 출간된 차별 질적연구문헌 상당수는 차별을 당연한 개념으로 간주하는 경향을 보였다. 하지만 문헌에서 차별의 예시로 제시한 진술(인용문)을 분석한

결과, 개념적 혹은 정의상 차별로 보기 어려운 경우가 많았다. 특히 일부 문헌은 비경험을 차별로 환원하거나, 부정적 경험 일반을 차별로 귀속시키거나, 혹은 이주민 지위에 기인하지 않은 부당대우를 (이주민) 차별로 보고하는 사례들이 상당수 발견되었다. 소수의 문헌이지만 진술의 인용을 생략한 연구도 눈에 띈다. 이는 차별의 개념과 정의에 관한 학계의 충분한 논의나 합의 부족에 부분적으로 기인한 것으로 추정된다(손인서·김승섭 2015). 또한 이와 관련하여, 외국의 개념을 적용할 때 주의가 요청된다. 2020년 이후 마이크로어그레션(microaggression)에 대한 학계의 관심이 증가하면서, 이를 경험연구에 적용한 문헌이 4 편 출간되었다. 그렇지만, 정작 이 개념의 적용가능성에 대한 이론적, 경험적 고찰은 거의 찾아볼 수 없다. 다시 말해, 개념이 고안된 미국의 사회적 맥락, 즉 차별금지 법제가 존재하는 맥락을 한국과 등치시킬 수 있는지에 관한 논의가 선행되어야 한다. 추후 연구는 한국사회의 맥락과 관련지어 이주민 차별의 개념과 정의에 대한 보다 진전된 논의와 합의 위에서 질적연구를 수행해야 할 것이다.

넷째, 구조적 차별에 관한 보다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 질적연구는 상대적으로 대인상호작용에서 발생하는 차별을 측정하기에 용이하지만, 국내 질적연구문헌은 배타적으로 대인상호작용에서 발생하는 가시적 차별에 집중하고 있다. 서구의 경우, 차별 질적연구는 개인의 경험에 초점을 맞추더라도 사회구조적 차별을 도외시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조사, 분석하고 있다. 예로, 사법제도(Van Cleve, 2016), 교육제도(Ochoa, 2013), 노동시장(Royster, 2003), 주거지역(Small, 2004) 등이 직간접적으로 개인의 경험에 야기하는 구조적 차별의 양상과 효과를 측정하고 있다. 국내 차별 질적연구가 구조적 차별에 소홀한 것은 부분적으로 앞선 논의한 개념적 논의의 부족과 관련이 있다. 서구의 논의와 비교할 때 국내의 이주민 차별논의는 대인상호작용에서 발생하는 직접적 차별, 즉 인지된 차별(perceived discrimination)에 한정되어 있다. 즉, 개인이 가하는 행위에 한정된 차별 개념화로 인해 사회구조적 효과로서 차별을 이론적 혹은 경험적으로 조사하는 문헌이 상대적으로 매우 드물다. 이는 장기적으로 차별연구의 편향성을 야기할 수 있다. 따라서 향후 차별

연구는 대인상호작용을 넘어서 사회구조가 어떻게 개인의 차별경험을 형성하는지 이론적으로 그리고 경험적으로 보다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다섯째, 차별의 사회경제적 그리고 사회심리적 결과와 영향에 관한 보다 많은 연구가 요청된다. 지난 10년간 출간된 차별 질적연구의 대부분은 차별 경험의 서술(description)에 배타적 초점을 맞추고 그 사회적 효과에 대해 상대적으로 소홀했다. 경험연구의 특성상 사용된 개념의 전제를 명시하지 않았지만 상당수 문헌은 차별을 적응과정에서 나타나는 일시적 현상으로 간주한다(일레로, 김중태·김광웅·문병기, 2016; 김한울 외, 2019). 차별은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아니라 동화가 끝나면 사라질 현상으로 그 영향에 대한 관심은 상대적으로 낮은 함의를 가진다. 다른 한 편으로, 차별은 개인이 극복해야 할 역경(challenge)으로 묘사된다. 일부 문헌에서 차별은 개인적 사건(event)으로서 개인 이주사(史)에서 나타나는 꺾적의 하나로 서술된다(일레로, 신한희 2018; 최영미·송영호 2022). 이 경우 차별은 개별 경험으로 차별 자체가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극복(대처) 혹은 좌절이라는 개인의 대응이 결과가 중요시된다. 대조적으로 서구의 선행문헌에서 차별은 집단간 권력관계의 산물로서 차별은 불평등 (재)생산의 기제로 개념화된다(Krieger, 1999; Pager & Shepherd, 2008). 선행문헌은 차별의 결과로서 소득, 교육, 재산, 혹은 거주 상 불이익(사회경제적 불평등), 혹은 정체성, 소속감, 트라우마, 우울감 등의 불이익(사회심리적 불평등)이 어떻게 발생하는지, 그리고 장단기적 영향을 꾸준히 조사해왔다(Small & Pager, 2020). 하지만, 지난 10년간 국내 질적연구는 차별의 영향을 거의 다루지 않았다. 소수의 문헌만이 차별의 내면화(internalization)와 같은 심리적 결과를 다루었지만(예로, 김은덕·김혜미, 2022), 그 외의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이후 연구는 차별의 다양한 영향과 불평등 양상에 관한 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

여섯째, 국내 이주민이 경험하는 차별의 유형, 성격, 종류에 대한 보다 많은 정책적 관심이 요청된다. 정부는 다문화청소년 패널조사, 전국다문화가족 실태조사, 북한이탈주민 실태조사, 이민자 체류실태 및 고용조사 등 이주민 대상 국가승인통계에서 차별경험을 조사해왔다(손인서, 2023). 아울러 정부

출연연구기관 등 정부기관의 각종 조사에서 차별은 필수적인 조사항목이다. 하지만, 대부분 “지난 1년 동안 외국인 또는 외국 출신이라는 이유로 차별대우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²⁾와 같이 질문하면서 이주민이 경험하는 다양한 차별유형, 성격, 그리고 종류에 대해 조사하지 않았다. 오직 차별을 경험한 장소만을 조사했을 뿐이다. 게다가, 정부기관이 시행한 여타 실태조사에서 질적연구를 활용하여 구체적인 차별경험을 유형화하려는 시도는 없었다. 정부의 낮은 관심은 부분적으로 차별연구에 대한 학계의 낮은 관심과 연동되는 측면이 존재한다. 하지만, 차별은 이주민의 사회통합에 가장 중요한 장애물 중 하나인 만큼(Krieger 1999) 정부의 보다 높은 관심이 요청된다. 이는 학계의 연구발전을 이끌어 이주민 사회통합에 대한 면밀한 정책구상을 가능케 할 수 있다.

연구는 2013~2022년 사이 출간된, 국내 이주민 차별을 조사한 질적연구 문헌 107편을 체계적 문헌고찰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 조사하였다. 지난 10년간의 차별 질적문헌의 특징과 경향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향후 연구에 필요한 과제를 제시하였다. 국내 차별 질적문헌은 양적 성장을 이루었지만 조사방법, 개념화, 그리고 근거제시 등 질적발전에 소홀하였다. 추후 연구는 선행문헌에 대한 비판적 성찰에 기반하여 이론적, 방법론적으로 보다 진전된 조사가 필요하다.

2024년 11월 27일 접수
2025년 2월 24일 수정 완료
2025년 2월 12일 게재 확정

2) 2020년 이민자 체류실태 및 고용조사표

참고문헌

- 김수영, 박지은, 서현주, 이윤재, 손희정, 장보형, 서혜선, 신채민. 2011. 「NECA 체계적 문헌고찰 매뉴얼」 서울: 한국보건의료연구원.
- 김은덕, 김혜미. 2022. “북한이탈주민이 한국 사회에서 경험한 차별에 대한 현상학적 연구.” 「복지와 문화다양성연구」 4(1):115-44.
- 김재은, 윤필규, 이민선. 2017. “한국전통문화 경험과 외국인 유학생의 사회 문화적응 과정: 신체활동을 중심으로.”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7(20):395-419.
- 김정숙. 2021. “초국적 주체와 Covid-19: 유학생의 인종언어 이데올로기 차별경험, 정체성, 그리고 행위주체성.” 「현대사회와 다문화」 11(2):69-102.
- 김정희. 2018. “사회통합을 위한 결혼이주여성의 차별 경험 의미화 과정 연구.” 「문화콘텐츠연구」 0(12):75-99.
- 김중태, 김광웅, 문병기. 2016. “북한이탈주민의 직장생활적응 장애요인에 관한 연구: 남한출신 관리자와 북한출신 근로자의 상호인식을 중심으로.” 「다문화와 평화」 10(2):29-52.
- 김지혜. 2020. “한국에 거주하는 조선족 청년의 삶에 대한 생애사 연구.” 「다문화사회연구」 13(2):65-106.
- 김한울, 김현준, 이강현, 양경은. 2019. “한국 거주 조선족의 이중정체성 및 문화적응 과정에 관한 질적 연구.” 「복지와 문화다양성연구」 1(1):69-88.
- 류진아, 오은경. 2021. “질적 메타분석을 통해 살펴본 북한이탈여성의 경험.” 「질적탐구」 7(1):35-69.
- 박미숙, 손영화. 2018. “중국계 외국인근로자의 인권 차별 경험을 통한 인권 보호 대안모색.” 「교육문화연구」 24(3):523-46.
- 박민철. 2014. “국내 이주 코리언 디아스포라의 정체성 변용과 가치지향.” 「디아스포라 연구」 8(2):41-75.
- 박상희. 2019. “한국 거주 난민의 구술사: 타자화 경험과 인종문제.” 「대구사학」 137(-):163-208.

- 박주현. 2023. 「국내 외국인 유학생의 '취업-정주' 지원을 위한 정책 방향 및 향후과제 논의: 일본의 유학생 취업 지원 제도의 시사점을 바탕으로」 Issue Brief. 이민정책연구원.
- 성정현. 2014. “탈북여성들의 남한사회에서의 차별 경험과 트라우마 경험의 재현에 관한 탐색적 연구.”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4(5):117-31.
- 손영화, 박봉수. 2015. “학교 밖 중도입국청소년의 인권에 관한 사례 연구.” 「교육문화연구」 21(1):75-102.
- 손인서, 김승섭. 2015. “한국의 차별경험과 건강 연구에 대한 체계적 문헌 고찰.” 「보건사회연구」 35(1):26-57.
- 손인서. 2023. “개념의 빈곤, 불충분한 측정: 국내 이주민 차별경험 척도의 재검토.” 「비판사회정책」 78:153-78.
- 신난희. 2018. “대구 · 경북지역 결혼이주여성의 차별 경험과 대응.” 「다문화와 인간」 7(1·2):193-226.
- 오정아, 변수정. 2020. “다문화 청소년의 학업중단 경험.” 「한국융합학회논문지」 11(7):125-36.
- 윤승주, 원재연. 2016. “몽골 결혼이주여성의 “다문화” 경험: 가부장제, 차별주의, 낙인의 다중적 결합.” 「동서연구」 28(4):1-30.
- 이경상, 배상률, 임지연. 2019. “중국출신 이주배경 청소년의 한국사회 적응 실태 및 정책적 개선방안.” 「少年保護研究」 32(1):183-230.
- 이윤희, Nuo Xu, 홍소은, 이은별, 양은주. 2022. “국내 중국인 유학생의 대학 생활적응 어려움에 대한 질적 메타요약.” 「한국심리학회지 학교」 19(2): 125-57.
- 이현심. 2014. “다문화가정 여성결혼이주자의 한국생활 어려움에 관한 질적, Cqr 연구.” 「농촌지도와 개발」 21(1):143-76.
- 이형하. 2013. “결혼이주여성의 생활세계 체험에 관한 질적 연구.” 「한국콘텐츠 학회논문지」 13(1):269-77.
- 이화숙, 김정숙, 이용승. 2021. “Covid-19 팬데믹이 유학생의 취약성에 미치는 영향.” 「현대사회와 다문화」 11(2):1-34.

- 임주원, 김서현. 2022. “국내 거주 난민의 한국정책과 적응 경험에 관한 질적 해석적 메타합성.” 「사회복지 실천과 연구」 19(2):5-46.
- 전주람, 최경. 2022. “10-20대 북한이주민들의 친구관계 경험에 관한 Fgi 연구.” 「문화와 융합」 44(1):569-88.
- 전혜경. 2022. “결혼이주여성의 한국생활적응과정에 관한 모형 -베트남 이주여성을 중심으로.” 「다문화사회와 교육연구」 12(-):107-42.
- 정영선. 2018a. “북한이탈청년이 인식하는 차별 경험에 대한 현상학적 연구.” 「한국청소년연구」 29(4):113-47.
- 정영선. 2018b. “북한이탈주민의 경제사회화에 관한 질적 연구 : 일과 진로를 중심으로.” 「글로벌교육연구」 10(2):3-38.
- 정윤경, 김희진, 최지현. 2015. “북한이탈주민의 차별경험과 적응의 관계: 자활효능감의 매개효과.” 「사회과학연구」 31(2):157-82.
- 정창용, 조미영. 2015. “유아교육기관에서의 부모교육에 대한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담론분석.” 「유아교육·보육복지연구」 19(3):293-323.
- 조세은, 김혜미. 2022. “여성 결혼이민자의 이혼 후 한국 생활에 대한 경험연구.” 「한국이민정책학회보」 5(1):85-107.
- 진재섭, 김윤희. 2022. “질적 메타분석을 통해 살펴본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장애자녀 양육경험.” 「인문사회 21」 13(4):2523-38.
- 최영미, 송영호. 2022. “이주배경청년의 마이크로어그레션(Microaggression) 경험과 대처에 관한 질적연구.” 「다문화사회연구」 15(2):171-204.
- 행정안전부. 2024. 「2023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현황」.
- Aspers, Patrik and Ugo Corte. 2019. “What Is Qualitative in Qualitative Research.” *Qualitative Sociology* 42(2):139-60.
- Bastos, Joao Luiz, Roger Keller Celeste, Eduardo Faerstein and Aluisio J. D. Barros. 2010. “Racial Discrimination and Health: A Systematic Review of Scales with a Focus on Their Psychometric Properties.” *Social Science & Medicine* 70(7):1091-99.
- Blank, Rebecca M., Marilyn Dabady, Constance F. Citro and National

- Research Council (U.S.). Panel on Methods for Assessing Discrimination. 2004. *Measuring Racial Discrimination*. Washington, DC: National Academies Press.
- Bonilla-Silva, Eduardo. 2006. *Racism without Racists : Color-Blind Racism and the Persistence of Racial Inequality in the United States*. Lanham: Rowman & Littlefield Publishers.
- Committee on the Elimination of Racial Discrimination (CERD). 2018. Concluding observations on the combined 17th to 19th periodic reports of Republic of Korea. Dec.14, (CERD/C/KOR/17-19)
- Charmaz, Kathy. 2006. *Constructing Grounded Theory*. London ; Thousand Oaks, Calif.: Sage Publications.
- Choi, Y. 2014. "High-Risk Work, Cultural Conflicts and Labor Mobility: The Experiences of Foreign Workers in the Shipyard Industry on the Korean East Coast." *International Area Studies Review* 17(1):57-74.
- Goldet, Gabrielle and Jeremy Howick. 2013. "Understanding Grade: An Introduction." *Journal of Evidence-Based Medicine* 6(1):50-54.
- Krieger, Nancy. 1999. "Embodying Inequality: A Review of Concepts, Measures, and Methods for Studying Health Consequences of Discrimination." *International Journal of Health Services* 29(2): 295-352.
- Light, Ryan, Vincent J Roscigno and Alexandra Kalev. 2011. "Racial Discrimination, Interpretation, and Legitimation at Work." *The ANNALS of the American Academy of Political and Social Science* 634(1):39-59.
- Matthews, Sarah H. 2005. "Crafting Qualitative Research Articles on Marriages and Families."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67(4): 799-808.

- Moher, David, Alessandro Liberati, Jennifer Tetzlaff and Douglas G Altman. 2009. "Preferred Reporting Items for Systematic Reviews and Meta-Analyses: The Prisma Statement." *Annals of Internal Medicine* 151(4):264-69.
- Munn, Zachary, Kylie Porritt, Craig Lockwood, Edoardo Aromataris and Alan Pearson. 2014. "Establishing Confidence in the Output of Qualitative Research Synthesis: The Conqual Approach." *BMC medical research methodology* 14:1-7.
- Ochoa, Gilda L. 2013. *Academic Profiling: Latinos, Asian Americans, and the Achievement Gap*. U of Minnesota Press.
- Pager, Devah and Hana Shepherd. 2008. "The Sociology of Discrimination: Racial Discrimination in Employment, Housing, Credit, and Consumer Markets." *Annual Review of Sociology* 34(1):181-209.
- Royster, Deirdre. 2003. *Race and the Invisible Hand: How White Networks Excluded Black Men from Blue-Collar Jobs*.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Small, Mario L and Devah Pager. 2020. "Sociological Perspectives on Racial Discrimination." *Journal of Economic Perspectives* 34(2): 49-67.
- Small, Mario Luis. 2004. *Villa Victoria: The Transformation of Social Capital in a Boston Barri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Sue, Derald Wing, Christina M. Capodilupo, Gina C. Torino, Jennifer M. Bucceri, Aisha M. B. Holder, Kevin L. Nadal and Marta Esquilin. 2007. "Racial Microaggressions in Everyday Life: Implications for Clinical Practice." *American Psychologist* 62(4):271-86.
- Udor, R. and S. J. Yoon. 2022. "The Effects of Colourism on Migrant Adaptation in Asia: The Racial Exclusion of African Migrants in South Korea's "Multicultural" Society." *Ethnic and Racial Studies*

45(10):2004-24.

Van Cleve, Nicole Gonzalez. 2016. "Crook County: Racism and Injustice in America's Largest Criminal Court." in *Crook County*. Stanford, CA: Stanford University Press.

Williams, David R, Yan Yu, James S Jackson and Norman B Anderson. 1997. "Racial Differences in Physical and Mental Health: Socio-Economic Status, Stress and Discrimination." *Journal of health psychology* 2(3):335-51.

Williams, David R, Hector M Gonzalez, Stacey Williams, Selina A Mohammed, Hashim Moomal and Dan J Stein. 2008. "Perceived Discrimination, Race and Health in South Africa." *Social Science & Medicine* 67(3):441-52.

Conceptualization and Measurement of Discrimination: A Systematic Review of Qualitative Research on Discrimination Against Immigrants in South Korea*

Inseo Son
Asiatic Research Institute, Korea University

SeungHoon Han
School of Public Service, Chung-Ang University

Abstract

With the steady increase in the immigrant population in South Korea, there has been a surge in social and academic interest in the discriminatory behaviors towards immigrants by natives. However, in-depth discussions regarding the definition, concept, and measurement of discrimination against immigrants are still lacking. This study analyzes the trends in qualitative research on discrimination against immigrants by paying attention to the unique characteristics of qualitative research, which investigates social phenomena without operationalization, as opposed to quantitative research. To do this, we systematically selected qualitative research literature related to discrimination against immigrants published between 2013 and 2022, focusing on a total of 107 academic papers to examine the definitions, concepts, and reporting trends of discrimination. The findings reveal that while the qualitative literature on discrimination has seen quantitative growth over the past decade, there are still shortcomings in terms of qualitative development concerning research subjects, methodologies, conceptualization, and measurement. Based on the findings, this study presents theoretical and methodological challenges for future research on immigrants and discrimination.

Key Words: qualitative research, discrimination, measurement, conceptualization